


## "수산업 분야의 기상정보 활용"

- 2006년 제1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

<p>완도군 수협은 기상사업자로부터 세분화된 서비스를 받은 결과, 목표치의 120%를 달성하는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 대비 56억원을 초과 달성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p>	<p><b>완도군 수협</b> <a href="http://www.wandosh.co.kr">http://www.wandosh.co.kr</a> </p>
<p>어업인들은 일상생활에서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나,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조업 중에는 기상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실정에서 갑작스런 기상악화에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p> <p>완도군 수협은 조합원들이 조업 중에 기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상에 특보 발효 시 문자 메시지로 이를 통보함으로써, 선박의 피해 예방과 해조류 건조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상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전대비를 통한 적조와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하였다.</p> <p>2005년 6월부터 수협 맞춤형 기상정보를 민간기상사업자로부터 지원받아, 조합원들에게 기상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기상재해는 불가항력이라는 어업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었다. 기상사업자로부터 세분화된 서비스를 받아 수협을 운영한 결과, 목표치의 120%를 달성하는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56억을 초과 달성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다.</p>	

### [제1회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개요 및 기관소개

- 1922년 어업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지역 발전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하였다.
- '05년 원도기상대와 긴밀한 업무협력 및 민간예보사업자(케이웨더)와 유료계약을 체결하여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하였다.

#### 조합들에게 기상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및 교육

- 원도 바다가 청정해역임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전북·미역·김·다시마가 유명하나, 어업은 기상 영향이 특히 많이 받는지라, 기상상태에 따른 생산품질의 좋고, 나쁨이 유동적이다. 상당수의 조합원이 해상 선박작업 또는 해조류 건조업을 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이 기상정보 활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 일상생활에서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기상정보를 얻었으나, 실적으로 어민들이 조업 중에는 기상정보를 듣지 못하는 실정이며, 해조류를 건조할 때도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하여 수산물 피해가 심각하였다.
- 그로 인해 수협 위관실적 저조는 물론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여야 하는 어민들에게 저품질 생산 가격 하락까지 겪는 이중고의 이픔을 겪게 되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 지난 2005년 6월부터 원도기상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협 맞춤형 기상정보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상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 조합원들에게 기상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 홍보하였다. 특히, 기상재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업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게 되었다.

#### 조합원들에게 기상정보 활용 정리

- 매일 메일링 서비스로 해상일일예보 및 특이 기상, 조석, 물때, 원도항 수온 등의 내용을 지원받아 어업인 및 어촌계 게시판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위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선박작업선 피해 예방(해상 특보 시 문자메시지)과 해조류 건조 관리**

- 조합원 절반이상이 선박작업을 하는데, 풍랑주의보도 중요하나, 주의보가 발표된 때는 이미 늦다. 그 전에 선박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도구 등의 준비를 모두 끝낸 상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비특보 발표시, 이를 문자 메시지로 신속히 알려주면 기상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었다. 특히 조합원 교육을 통해, 만약 예비특보가 도중 해소되더라도 “주의보가 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악기상일 때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박도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어 기상악화로 인한 어선 사고가 전혀 없었으며, 해조류 건조도 날씨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조류 품질을 향상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 **사전대비로 적조와 태풍피해 최소화**

- 2005년도는 유난히도 남해안에 적조가 심했던 한해였다. 이에 적조확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한반도 해수 온도 자료를 활용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태풍 접근시, 태풍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원들에게 태풍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만약의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에 힘썼다.

## **민간예보사업자와 유료화 계약 체결**

-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크음을 인식하고, 기상정보의 유료화를 검토, 예산 편성 계획에 포함시켜 민간 예보사업자(케이웨더)와 유료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기상정보 활용의 결과로 수협의 총 매출액 증가, 수협 이미지 제고**

- 위 와 같이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한 결과, 조합원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킴과 동시에 완도군 수협의 판매실적은 목표치의 120%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56억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 완도군수협의 이미지를 제고 하였다.